



대학간 통합을 통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영산대와 성심외국어대의 통합 사례 -

유 창 근 | 영산대 기획처장

I. 통합의 배경 및 취지

1. 지방 대학의 위기와 과잉 정원

최근 대입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 및 4년제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의 전문대학들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아 2002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상당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03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더욱 감소하여, 대학의 모집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 한정되었던 미달 사태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전문대학들로 확산되고, 입지조건이 불리한 4년제 대학에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대학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교육의 수요·공급 불균형과 대학의 서열화 현상이다. 정부는 대학 입학정원 관리에 실패하여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을 초래했고, 지역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지원해 왔으며, 대학의 특성화, 교육 여건 개선, 학생의 선택권 확대, 교육정보화 등을 장려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대학의 입지, 설립 형태, 설립 시기 등에 의해 대학이 서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종합평가나 재정지원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많은 지방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입지 여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과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학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 같은 지역에서도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2.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정원 감축

지난해 영산대(경남 양산 소재)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 학교법인 소속 전문대인 성심외국어대를 흡수 통합하였다.

부산에 위치한 20년 전통의 성심외국어대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외국어 전문대학으로 정원의 70% 이상이 실용 외국어 및 사회실무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어 관련 학과가 총 8개로 2년제 대학으로서는 가장 많은 외국어학과를 설치·운영해 왔다. 외국어 분야에서는 그동안 회화 위주

의 교과편성과 단기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중급 수준의 회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 도시인 부산 지역의 산업체 수요에 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사회 인력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외국어 회화 능력만 갖추어서는 사회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 인력 수요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 외국어 특성화를 추진하고 교육의 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외국어대는 최근 대입학령인구 감소와 수학능력 저하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2년제 교육체제로는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했다.

2년제 대학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한 성심외국어대는 지난 수년간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 승격을 위해 준비해 왔다. 그러나 동일 권역에 있는 영산대와 전공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현실에서 하나의 법인이 2개의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재정 및 교육내실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양 대학은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양 대학이 통합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실현한다면 입학정원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수입 감소를 극복하면서 지방 사립대학으로서 생존과 발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성심외국어대는 통합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과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우수한 실무 전문가 양성을 통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통합의 주체가 된 영산대도 1997년 개교 이후 지속되어 온 과도한 시설 투자 대신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후발 대학으로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 대학 위기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있으며,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도 입학 정원 감축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제정의 감소를 이유로 대폭적인 정원 감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영산대와 성심외국어대의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대폭적인 정원 감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 대학의 통합은 지방 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심각한 과잉 정원의 문제를 대학 차원에서 해소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대학의 규모 확장이나 전문대의 4년제 전환이 주목적인 다른 대학들의 통합 사례와 구분된다.

II. 정원 조정 및 학부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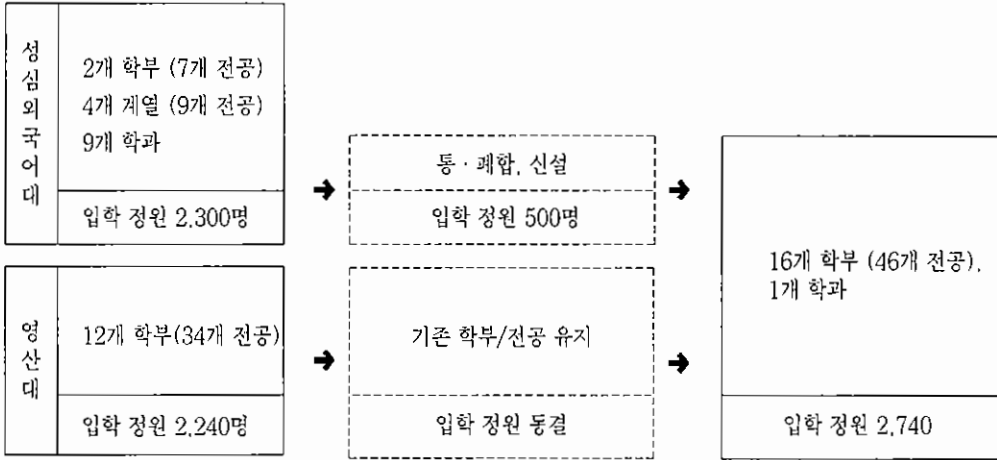
1. 전공 통·폐합 및 정원 감축

영산대는 성심외국어대를 폐지하고 이를 흡수 통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따랐다.

- 전공 통·폐합 : 영산대의 설치전공과 유사한 성심외국어대의 전공(학과)은 폐지하여 영산대의 해당 학부/전공에 통합한다.
- 전환·신설 : 영산대의 설치전공과 중복되지 않는 성심외국어대의 학부/전공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4년제의 학부/전공으로 전환하여 신설한다.
- 폐지 : 4년제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회적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는 전공은 폐지한다.
- 정원 감축 : 성심외국어대의 입학 정원 2,300명을 500명으로 감축하여 영산대 정원을 늘린

통합 전

통합 후



〈동·폐합 및 정원 조정〉

다. 이로 인하여 영산대의 정원은 2,740명이 된다.

성심외국어대를 통합한 이후 영산대는 기존의 국제학부, 디지털경제무역학부, 호텔관광학부, 매스컴학부, 정보경영학부, 법률행정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건축학부, 디자인학부, 생활스포츠학부와 신설된 아시아비즈니스학부, 식품조리학부, 패션디자인학부, 영화영상학부, 전자출판미디어학과 등 16개 학부 1개 학과를 둔다.

2. 캠퍼스별 특성화에 따른 학부 재배치

성심외국어대의 재산이 영산대로 귀속됨에 따라 현 영산대 캠퍼스를 '양산캠퍼스'로, 현 성심외국어대 캠퍼스를 '부산캠퍼스'로 한다. 캠퍼스 배치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각 캠퍼스의 특성화를 고려하였으며, 이 원칙에 따라 양산캠퍼스의 기존 학부 중 국제학부와 호텔관광학부는 부

산캠퍼스로 위치를 변경한다. 캠퍼스 특성화는 캠퍼스별 지역산업 기반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한다. 캠퍼스별로 구성되는 학부는 특성화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양산캠퍼스는 양산 지역과 인접 울산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체의 정보화 및 경영 효율화에 대한 기여를 특성화 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정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정보경영학부를 중심으로 IT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산대는 '프로젝트 중심 IT 교육혁신' 사업으로 2002년 지방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부산캠퍼스는 부산의 주력 산업인 관광, 무역,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국제화 부문에 대한 인력 양성 및 지식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특성화 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호텔관광학부, 식품조리학부, 국제학부, 아시아비즈니스학부를 중심으로

〈표 1〉 캠퍼스별 입지 여건과 학부 배치

구분	입지 여건	학부 배치
양산캠퍼스	중소기업공단 밀집 (양산, 울산), 전자상거래 확산	디지털경제무역학부, 정보경영학부, 매스컴학부, 법률행정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건축학부, 패션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 생활스포츠학부, 전자출판미디어학과 (11개 학부, 1개 학과)
부산캠퍼스	관광(해운대), 국제화(항만, BEXCO), 영화(부산국제영화제)	국제학부, 아시아비즈니스학부, 호텔관광학부, 식품조리학부, 영화영상학부 (5개 학부)

특성화를 추진한다.

Ⅲ. 조직개편 및 학사운영 계획

1. 조직개편

통합 후 영산대의 조직은 기존 영산대 조직의 체계를 유지한다. 대학 본부를 비롯한 대학의 주요 행정 기능은 양산캠퍼스에서 수행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은 통·폐합하되 양 캠퍼스에서 동등한 학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본부는 양산캠퍼스에 두고 기존의 교학처, 기획처, 입학관리처, 산학연구처, 사무처 등 5개 처에 더하여 부산캠퍼스에 종합행정지원처를 설치하여 부산캠퍼스의 교육 및 연구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공간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고려하여 학부,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를 배치한다. 기능이 중복되는 양 대학의 부속기관을 통·폐합하되, 양 캠퍼스에 모두 두어야 할 부속기관은 제 2캠퍼스에 분관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 다만, 캠퍼스별 특성화를 고려하여 언어교육원은 부산캠퍼스에 둔다. 양 대학의 유사 연구소를 통합하고 통합 후 학부 배치와 캠퍼스별 특성화를 고려하여 부설연구소의 위치를 조정한다.

2. 학사운영 방안

1)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실무와 이론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다. 따라서 성심외국어대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원을 구축하고 있고, 영산대는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원을 구축하고 있다. 양 대학의 통합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성심외국어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변신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역량을 영산대와의 통합을 통해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실사구시 교육을 지향해 온 영산대는 통합을 통해 성심외국어대의 실무 교육 경험 및 교육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대학 발전 목표의 달성을 앞당기도록 한다.

현재 성심외국어대 설치전공들 중 통합 후 영산대에 신설되는 전공들은 해당 분야의 시대적·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고 영산대의 교육목적인 '참된 인성·창의성·실용성' 구현에 적합하도록 전공교육과정을 개편한다. 특히 기존 2년제 대학 교육과정에서 미흡했던 이론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보완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적합한 전공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교양교육과정은 새로이 신설되는 아시아비즈니스학부, 식품조리학부, 패션디자인학부, 영화영상학부, 전자출판미디어학과 등과 연계하여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양교과목을 확대 개편한다.

2) 양 캠퍼스 운영에 따른 학생 편의 도모

일부 학부의 위치 변경에 따른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행 확대 및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타 캠퍼스 설치 전공 교과목의 수강 및 캠퍼스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양 캠퍼스간 셔틀버스를 상시 운행한다. 그리고 복수전공 및 부전공 활성화를 위해 학기별 복수전공·부전공 교과목 집중수강제도 도입을 검토 한다.

3) 성심외국어대 재학생에 대한 학사관리

성심외국어대가 존속하는 2004년 2월말까지 성심외국어대 재학생의 수업 및 학사관리는 모두 부산캠퍼스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학사관리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성심외국어대 재학생의 학생 지도를 위해 기존 성심외국어대 학부 및 학과의 보직체계는 성심외국어대가 존속하는 2004년 2월말까지 유지하며, 통합 이후 성심외국어대 재학생의 학사관리 및 졸업생의 학적관리는 새로이 설치되는 종합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IV. 통합의 기대 효과

1. 인력 수요 고도화에 대응

성심외국어대는 사실상 국내 유일의 외국어 전문대학으로서 지금까지 외국어 및 사회실무 분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 인력 수요의 고도화와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특성화나 일부 학과의 구조조정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인력 양성을 고도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통합이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2. 교육 여건 개선

중복되는 전공이 많은 양 대학은 입학 정원의 감축을 수반하는 통합을 통해 전임교원 비율을 대폭 높이고 시간강사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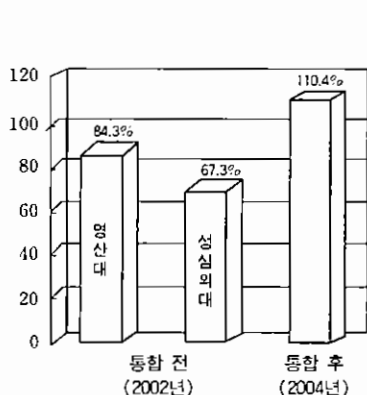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2002년 현재 재학생 기준 각각 84.3%와 67.3%인 영산대와 성심외국어대의 교원확보율은 전문대학 잔류 학생이 줄어드는 2004년에 110.4%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신설 학부의 편제가 완성되면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합 이후 일부 학부의 위치 변경을 통해 2002년 3월 현재 재학생 기준 각각 97.6%와 161.1%인 영산대와 성심외국어대의 교사확보율은 2004년에는 138.9%로 될 전망이다.

이처럼 통합은 입학 정원의 대폭 감축으로 발생하는 성심외국어대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설 대학으로 아직 시설이 부족한 영산대의 교사확보율을 크게 높이는 등 대학 전체로 보아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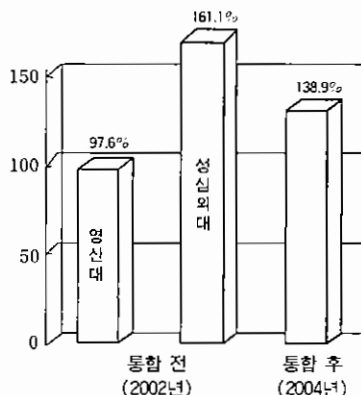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캠퍼스별 특성화

이미 '로스쿨 방식의 법률교육' 특성화로 전국적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그림 1) 통합 전·후 교육 여건 비교

인 지명도를 확보한 영산대는 양산캠퍼스에서 양산시 및 울산광역시에 밀집한 산업체들의 정보화 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산학 협력에 중점을 둔 IT 특성화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영산대는 부산캠퍼스 확보를 계기로 관광·국제화 분야의 특성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미 성심외국어대는 관광 및 실용외국어 특성화를 통해 부산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영산대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호텔관광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다. 양 대학의 통합 후 부산캠퍼스는 부산광역시 국제관광개발의 중심인 동부산권(해운대, 기장)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서 부산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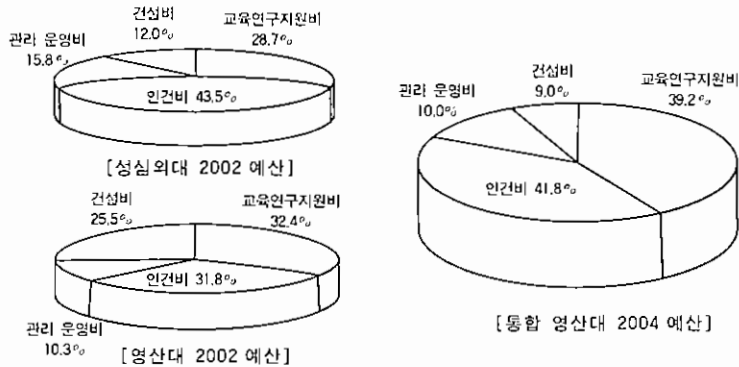
4. 경영 효율화

양 대학의 통합에 따른 행정조직, 학부/전공,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인력

수요를 줄이고 시설·공간·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입학 정원의 감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성심외국어대는 교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입학 정원의 대폭 감축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1997년에 개교한 영산대는 편제가 완성되면서 재학생이 크게 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신규 충원 수요가 많은 실정이다. 전공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양 대학이 통합하게 되면 정원 축소에 따른 무리한 인력 감축을 피하면서 그것이 영산대의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2004년 통합 영산대의 교원 확보율은 110%로 크게 높아지지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42% 정도로 매우 양호한 재정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신설대학으로 재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영산대는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아 매년 많은 시설 투자비를 부담해 왔으나 아직 시설 확보 측면에서




* 교육연구지원비 = 총예산 - 경직성 경비(인건비 + 관리운영비) - 건설비

(그림 2) 통합 전·후 대학재정 비교

기존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반면, 성심외국어대는 현재로서도 시설에서 큰 여유가 있으며(2002년 교사 확보율 161%)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대규모 유휴시설이 발생하게 된다. 양 대학의 통합 및 이에 따른 학부의 적절한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2004년 교사 확보율은 139%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달성하면서 영산대의 건설비는 타 대학들과 유사한 9%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특성화 및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정원 감축을 통한 수급 불균형 완화

양 대학 통합으로 성심외국어대의 2,300명 규모의 입학 정원이 500명으로 감축된다. 2001년 부산·경남 지역 전문대학 입학 정원이 46,0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전문대학 입학 정원을 약 4%나 축소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정원 감축은 200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2003학년도에는 더욱 심각하게 될 이 지역 전문대학의 대량 미충원 충격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며, 입학 정원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유창근

서울대에서 경제학(국제 무역)박사학위를 받았고, 기아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영산대 학생생활연구소장과 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영산대 기획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International Vertical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